

## Jean Kim's Stories – Korean - 김진숙 목사의 이야기

### 이글은 십자가를 심으라는 나의 저서에서 빌려온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숙사역을하는 나를 대할 때 한국인, 미국인을 막론하고 공동으로 묻는 질문은 1)“어찌다가 그런사역을 하게되었는가” 2) “그 노 숙자교회가 한국교회이겠지”3) 흔히 우리노숙자교회를“shelter”라고 부 르는사람도 많더라는 것이다. 내 짐작에 처음질문은 내가 체구가 작고 연약해 보이므로 그런 억척스러운 사람들과 목회를 함짓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한국 태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로 하는 목회를 함 짓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노숙자교회는 드물고 shelter 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 할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고자한다.

나의 인생은 우선 나를 낳아 주신 어머니의 비전속에 잔뼈가 굵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고통하며 사시던 어머니의 이 딸에 대한 비전은 “밥 할줄 모르고, 바느질 못하고, 음식을 못하고 심지어는 시집을 못가도 좋으니 많이 배워서 스스로 서서 학대받지 말고 살라”였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나보다 15 세 연상이면서 아버지벌이던 큰오빠가 나 에 대해 가졌던 비전이 있었다. 이복에 살때 (1945 년 이전) 서울의 보성고보 출신인 큰오빠는 나에게 “너는 똑똑하니 서울 유학 시켜주마” 약 속했었다. 그는 자주 두 손으로 나의 머리양쪽을 잡아 번쩍 들어 올리면 서 서울구경을 시켜준다고 했었다. 서울에 피난온 후엔(1946 년 이후) 나는 돈암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중에 입학하니 나에 대한 그의 약속과 꿈은 이루어진 셈이다. 그 다음엔 “미국 유학 시켜 줄것이다”고 약 속하셨다. 그는 나를 위한 그런 비전을 실천하지 못한채 내가 이화여 중 2 학년때(15 살) 6.25 사변중에 전사하고 말았으나 어머니와 그의 비전은 계속 나의 영혼속에 살아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시 집가서 자식 낳아주고, 밥짓고, 집안일하고, 시부모와 남편에게 순종하고, 장님, 귀먹어리, 병어리로 살다가 그 집 귀신되라”를 여자의 운명과 신조처럼 가르치고, 여자를 공부시키기를 거부하던 그 시대, 그 문화권 안에서 어머니와 오빠가 나에게 심어주신 비전은 그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것이었다.

나는 이화여고에서 예수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딸로서 장차 좋은 기독교 여성 지도자가 되라, 사랑, 자유, 평화를 만드는 여성이 되라”는 기독교신자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훗날 내가 목사가되고 가난 한이들을 섬기는 일꾼이 되는데 밋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면 내가 어릴때 어른들이 나에대해 가졌던 비전들이 오늘의 나로 성장시켰다고 감사한다.

나는 20 세 이전에, 백일간의 새벽기도회에 충실히 참석한 일이 있다. 어느날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신학공부를 하라는 비전을 받아 신학대학에 가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라는 비전을 받아 전쟁 후 가장 가난한 이들이 많았던 60 년대에 사회사업가로서 한국 케아(CARE) 라는 기관에서 나환자, 고아, 과부들을 돕는 일을 보람있게 해 본 일이 있다.

70 년에 미국에 이민와서 St. Louis 에 살 때 줄지에 17 살난 아들을 잃고 죽기 를 걱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제발 벌하시고, 버려주시고 용서도, 불쌍히도 보지마시라고 애원하고, 살기를, 위로받기를 거부하며, 영안이 어두어져서 아무런 소망도, 빛도, 내일도 못보고, 집과, 무덤과, 직장 세 곳을 헤매고 다니던 나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비전을 주셨다. 나의 영안을 뜨게하여 성경을 밤, 낮으로 미친듯이 읽도록 인도하신 후, 값없이 자신을 위해 죽지말고, 살아있는 불쌍한 이들을 위해 죽으라는 비전을 주시니, 나는 그에게 붙잡힌 포로가 되어버려 미국장로교에서 안수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첫 목회는 씨애틀에 있는 워싱턴 주립대학의 교목으로 부름받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역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의 꿈에 나타나시어 명확한 또 하나의 비전을주시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1988 년 부활절 새벽, 꿈에 큰 빛 속에서 말씀하셨는데, 단칸 방 짜리 작은교회 문 안쪽에 나를 세워놓고 바로 거기에서 “십자가를 심으라. 그러면 그것이 지붕 밖으로 자라 나갈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 비전이 너무 분명하였으나 무엇을 뜻하시는지 알아듣지 못해 계속해서 대학교목으로 더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의사들도 모르는 병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매를 가하셨다. 하루는 병원에 누워 “제가 앓는 병의 의 미가 무엇입니까? 그 꿈의 뜻을 제가 알아듣게 분명히 말씀 해 주십시오” 하며 조르니 영안을 다시 열어 주셨다. 십자가를 심으라는 비전은 노숙여성 목회를 하라는 비전으로 밝혀 주셨다.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로, 가난과 병과 학대와 버림과 무시와 외면과 절 망이란 것들에게 매를 맞아 길거리로 쫓겨나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형상이 망가지고 찢긴 노숙자 여성들의 심령속에, 생활속에, 십자가를 심 는 즉 그리스도의 사랑, 환영, 높임, 소망, 용서, 은혜, 재생, 부활을 심는 노숙자 교회, 막달라 마리아 교회를 빈손으로 개척케 하시니 이것이 곧 십자가를 심는 사역이었음을, 교회벽에 걸려있는 나무 십자가가 아니고 죽는 자리에 있는 이들을 일으키는 살아 움직이는 십자가를 심는 사역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이 책의 제목이 나오게 된 것 이다.

생후 5 살때부터 앓아온 천식이 점점 심해져 곧 죽을것 같아 나는 수십 년간의 경험을 무덤에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역울하여, 정신이 맑을 때 글을 써 남기려고 조기 은퇴를 이사회에 요청해 놓고, 준비중에 나는 하나님께 “제가 목매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읽는데 너무 많은 세월을 필요로하니 나의 조기 은퇴가 마음에 안 드시면 말씀하시되 내가 알아 들을수 있게 쉽게, 그리고 빨리 하시라고” 여쭙었다. 불과 얼마후, 느닷 없이, 생각조차 해본일이 없는데,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전국을 순회하며 미국 장로교회들을 노숙문제에 대해 의식화시키고, 교육하고, 적극 적으로 노숙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불어넣는 사역을 맡는 일 자리가 내려오니 나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이보다 어찌 더 신속 하고 분명할 수 있으랴! 나는 곧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 하고 7 년간 미국의 반이넘는 31 개주에, 성령님의 등에 업혀, 최신 속도 로 날아다니며 450 회이상 설교/강연을 하게 되었다. 내가 많은 교회들 에게 설교한 내용들은 모두가 결국은 십자가를 심는 것이었음들 뒤늦게 깨달았다. 가난하고

병든이들에게 사랑, 자비, 형제애를 베풀고, 인간의 생존을 위해 근본인 의, 식, 주를 마련해주고 병든 이들에게 나음을, 절 망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자고 그들에게 외쳤는데 이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상징하는 사역이다. 그래서 결국 이 작은 책자의 내용이 주님의 십자가를 심는 사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장로교 총회 기아 프로그램은 내가 틈틈히 쓴 것을 333 페이지의 책으로 출판하고, 비디오까지 제작하고, 내가 Seattle 에서 시작한 “노숙을 끝 내자”는 메세지가 새겨진 셔츠까지 도맡아 보급을 하니 이 어찌 성령님의 역사는 실로 놀랍다고 아니하라! 오늘 나의 간증은 설새없이 주시는 비전을 못알아 들으니 매도 가하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나를 업고 날으 셴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비전이 왔으니 이를 어찌하라! 1999 년 가을에 NE Synod 총회에 강사로 불려간 일이 있는데 그 행사가 끝난후 Toledo, Ohio 의 한국교회에서 설교 부탁 받고 최 집사님택에 묵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집에 묵는 동안 어느날 새벽에 분명히 그택 여집사님이 나의 방 문 앞에 와서 “김목사님” 하고 불려 문을 열어보니 아래층엔 불도 켜 있지 않았고 아무도 없었다. 나중에 물어보니 그 집사님은 나를 부른적이 없고, 오히려 내가 깰까봐 내가 일어난 인기척이 들릴때까지 윗층에서 내려 오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이 출근한후 더 계속 자고있었는데 한번은 문밖에서 내가 설교할 그분들이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이 “김 목사님”하고 문 밖에서 불렀고, 다른 한번은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나서 두번 다 문을 열고 보면 아무도 없었는데 이런일이 하루아침에 세번이나 있었다. 분명히 그택에 묵는동안 누군가가 나를 세번 부른 것이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라고 여쭙어 보기에 이르렀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전을 주신일이 있기 때문에.

얼마간 주님께 이 질문을 반복하는 동안 어느날 장로교 총회 기아프로 그램 총무가 새로 나에게 주어진 직책속에 한국 교회들이 참여하도록 하라는 대목이 들어있다고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노숙문제에 관심있으신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보겠다는 나의 비전을 물심 양면으로 적극적으로 받아 주었다.

나는 한국 교회 목회를 해 본 일이 없고 내가 한 사역은 영어하는 사람들의 교회여서 한국 교포 교회에는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한국 교회에 가서 강연할 생각조차 해 보지 못했었다. 그러나 나를 초청해간, 영어 하는 교회들이 주위의 한국 교회들에 알려, 서서히 한국 교회들과 미국신학교에서까지 강사로 부르며 노숙 문제, 가정 폭행 문제, 정신질환 문제를 다루어 달라는 부탁이 왔다. 이것이 성령님의 일이 아니면 무 엇이란 말인가?

1999 년 여름에 Atlanta 에서 모인, 한국교회 여신도회에 강사로 갔을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어느 여전도사님이 도전을 주신적도 있다. 노숙자 사역을 하고 계시거나 관심 있으신 훌륭한 하신 한국계의 젊은 목회자들을 만나 서로 깊은 사역 동지애를 나누는 일도 있다. 장로교 총회 기아 프로그램의 비전을 알게되신 NKPC 총무님께서도 노숙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 선교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국교회를 돕기위해 나를 연결시켜 주신다고 하셨다. 이렇게 되어진 모든 일들은 나의 계획이 아니고, 예삿일이 아니니, Toledo 어느 집사님택에서 있었던 세번의 부름이 곧 나를 한국교회로 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인 것 같 아 “예, 가겠습니다”고 대답했다.

제 209 차와 210 차 (1997 년과 1998 년) 미국 장로교총회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의 노숙근절을 교단의 정책으로 채택하도록 Seattle 노회를 통해 제안을 (overture) 제출했는데 통과되어 총회의 여성 목회부는 이 정책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사명을 받았다.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노숙자사역의 오랜 경험을 가졌다하여 1998 년 2 월에 나를 채용하여 전국 순회설교의 길에 오르게 된 것이다.

2 년 후 장로교 총회 세계선교분과의 국내 기아 프로그램이 본 사역과 나를 인계받아 4 년간 더 계속하고 내가 은퇴할 때가 되니 이 사역을 교 단 안에 계속 활발히 살아 움직이게 하기위해 Presbyterian Network to End Homelessness 란 사역단체가 탄생하고 1 년간을 더 도와주고 현 재는 이사로 남아 모금을 담당하고 있다.

청중들에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한 두 장씩 자료를 쓰기 시작한 것이 수 백 페이지로 모아지고 장로교 기아 프로그램이 이를 출판하니 “End Homelessness -Jubilee Manual” 이란 책이다. 대부분의 설교/강연/ 세미나 대상이 미국말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책을 영어로 써야 했다. 미국장로교 안에서는 자료로 쓰여지고있다. 내가 전국을 날아다닌지 3 년 되니까 하루는 기아 프로그램 총무가 나를 카메라 앞에 앉혀 놓고 순회 설교하며 느낀것에 대해 말을 실컷 시키고는 그것을 짤막한 비디오에 담았다. 내가 하는 말들은 신통치 않지만 총회 Media 분과에서 전문적인 제작을 하여 그 작은 비디오의 역할이 크다고 들었다. 1 년 후에 한국 교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니 한글 자막도 넣게 되었다. 노숙 근절 책을 한글로 옮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였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다 2002 년 7 월에 한국 교포교회 지도자 여러분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게된 바 한글로 된 것이 필요하여 330 페이지의 책을 60 페이지 에 한글로 요약했으나 역시 미비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지금까지의 모든것을 좋은 논문에 담아보려고 2004 년에 San Francisco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감사하고 재미있고 보람있게 공부를 다 시하고 “노숙의 근본원인에 대한 비판적 연구와 교회의 반응”이라는 제 목으로 박사논문을 2005 년말에 제출하고 통과되어 5 월 20 일에 목회학 박사를 받았다. 내가 70 고령에 학위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교수들의 지도하에 교회를 위해 좋은 글을 남기고 싶어서였다. 그래서 그 논문의 일부를 이 책자에 인용한다.

“어찌다가 노숙자 사역을 하게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또 다음과 같 이 요약한다.

**개인적으로는** 세계 2 차대전중, 한국이 일본의 압제하에 온 나라와 국민이 고통하던 시절에 태어나 작은나라가 큰나라에게 당하는 압제를 절감 하며, 유교를 신봉하는 사회에 태어나 여성이 당하던 학대를 눈으로 보며, 공산치하에서의 기나긴 1 년, 피난과 전쟁이라는 광야 생활에서의 가난과 고통, 이민생활에서 자식을 잃는 뼈깊는 아픔과 절망이란 개인적인 경험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사람들을 이해하는 동기가 되었다.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갈릴리 길바닥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당시의 문화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 이방인, 병자, 여인, 아이 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을 고쳐주시며 구 원하시던 예수님께 나는 10 대 소녀시절부터 완전히 반해 버렸기때문이고, 그리고 한 목소리로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 봐주고 구원하라고 구구절절히 외치는 신,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주님의 음성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서, 그리고 나같은 죄인도 구원하셔서 사람구실을 하도록 만들어주신 주님께 갚을길이 없는 빛을 저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람구실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는** 나와 내 아이들과 가족에게 삶의 보금자리와 일자리를 마련해주어 이 땅에 뿌리내리고 살게 허락해준 이 고마운 나라에, 이 땅에 났으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병들고 절망 속에,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내가 그리스도에게 진 은혜를 그들에게 갚아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